

농어촌公, 민생활력 규제개혁 공개

농지은행, 현장요구 반영 ‘제도손질’

민원수용 용역입찰 참가자격 완화 등
사내공모 발굴·과제 등 18건 재정비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올 해 추진해 온 규제개혁 18건을 4일 공개했다. 입찰 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제도를 손보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중심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로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점검해 총 1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용역 입찰 참가자격 완화다.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에 접수된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 결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실적 평가에서도 유사 실적과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은행 분야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농지를 임대수탁하는 경우 소유자가 농업인이라면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낮췄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공사는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계약 내역을 즉시 전송하는 윈스톱 서비스도 도입해, 농업인이 별도 방문 없이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의무였던 원상복구 조항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면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했다.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길을 열었다.

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도 마련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지원 약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내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막을 올린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개막식 발언에서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는 내용의 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의 포럼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농식품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가치 창출’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 및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시장 개척 및 수

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CEO 전사적 안전점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1월 11일 ~ 12월 2일까지 약 한달간, CEO가 직접 주관하는 ‘전사적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됐으며, 이영조 사장은 주요 사업소를 순차 방문해 현장 안전 경영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1일 보령발전본부(신복합·옥내저탄장 건설현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방문을 시작으로, 12일 신서천발전본부 동백정 복원공사, 13일 함안복합발전소 건설현장, 28일 서울발전본부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임직원들이 ‘AX 미래전략 Day’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2030 AX 비전·전략’ 공개
남부발전, AI 전환 본격화

부산 본사에서 ‘AX 미래전략 Day’

한국남부발전이 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본격화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부산 본사에서 ‘AX 미래전략 Day’를 열고, 2030년까지 추진할 AX 비전과 전략을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고 AI·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영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X 미래전략 선포 ▲AX 리더십 교육 ▲KEMI(자체 구축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남부발전은 올해 새롭게 수립한 ‘2030 AX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전사 핵심 업무를 AX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비 운영·발전 효율·안전관리 등 발전소 운영 전 분야에 AI 기술을 대폭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AI·데이터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체계, 실행 거버넌스, 세부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AX 리더십 교육’ 세션에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AI 전환 사례가 공유됐다. 강연자로 나선 국내 전문가는 “AI 성공의 관건은 데이터의 질·접근성·활용 체계에 있다”며 “남부발전은 설비 운영과 에너지 수급 등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AI 적용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는 전사 임직원이 참여한 ‘KEM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남부발전이 자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 KEMI를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낸 ‘성공 사례 부문’과 미래 적용성을 높게 평가받은 ‘신규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수 제안이 다수 발굴됐다. 회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AX 로드맵에 반영해 AI 기반 업무혁신을 전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집행간부 절반이상 물갈이 ‘인적쇄신’

성과우수·전문성 갖춘 인재 전면배치

농협중앙회가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등 고강도의 인적 쇄신에 나섰다고 밝혔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농협이 천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실제 인사에 반영한 결과물이다.

농협은 기존의 인사 관행을 없애고 임기가 남은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된 과감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또 성과우수, 전문성, 혁신역량, 현장경험 등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로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 등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도 눈에 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체질개선 및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집행간부 인사에 이어 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 인사도 내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公,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출시

하나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 산재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혜택을 대폭 확대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산재연금증카드)’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전용카드는 병원 치료비와 약값 할인에 더해 교통비·마트·주택관리비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전용카드의 주요 혜택으로는 ▲병원·약국 등 의료비 할인, ▲버스·지하철·택시·철도·시의·고속버스 등 교통비 할인 ▲마트·학원비·관리비·전기·가스요금·주유비 등 주거·생활요금 할인 ▲국내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이다.

앞서 공단은 하나카드와의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을 조성해 산재연금수급자 389명에게 자녀 학비, 건강검진 비용, 문화생활 비용,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후원 분야와 대상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99개 기업에 특허 무상제공

산업부, 기술나눔행사 개최

삼성전자가 특허 125건을 99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서 삼성전자 윤성환 상무, 70여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오고 있고, 누적 제공기술은 7008건에 달한다. 이 중 1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대상 기술은 모바일·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영상·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들로 이루어졌으며, 99개 기업에 125건의 우수기술이 이전된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통신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되었는데, 그중에서 ‘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당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대응시켜 입력된 메시지의 문맥·감정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우수기술이 활발히 이전돼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